

#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04 November

11



## 표지인물 이윤수 NYK LINE 고문

지난 9월부터 NYK LINE의 고문을 맡고 있는 이윤수 고문은 1983년 설립된 '소양해운'에서 일본 NYK LINE의 한국총대리점 역할을 수행해오다 세계 대형 선사들의 글로벌화의 일환으로 NYK LINE이 현지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동안 소양해운을 이끌어오면서 한국해운의 선진화는 물론 NYK LINE의 선진해운 노하우를 국내업체에 전수하는 등 해운업계의 리더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윤수 고문을 만나 우리 해운업계의 발전상과 21년을 이어왔던 소양해운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그의 해운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관련기사10~13면〉

### 3 머릿글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4 월프로그램

11월 프로그램

### 6 화제의 강연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10 커버스토리

이윤수 NYK LINE 고문

### 14 나의 경영이야기

권경현 교보문고(주) 사장

### 16 지자체특강

강신겸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 19 발행인편지

### 20 세상을 보는 눈

박영실 Service Power Academy 원장

### 22 회원&연구원소식

### 26 리더십이야기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 28 제54차 퍼그워시 총회

Joseph Rotblat 퍼그워시 전 회장

### 30 이시형 칼럼

사진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원장



# 저렴하게 드리는 것만이 최선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매년 마일리지카드 적립 포인트의 일정금액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연중 캠페인 '더불어 잘 살기'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마일리지 기부단체

2000년  
환경 운동연합  
한국 복지재단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국군장병 돕기

2001년  
환경 운동연합  
한국 복지재단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국군장병 돕기

2002년  
환경 운동연합  
한국 복지재단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국군장병 돕기  
사랑의 대바자(12월)

2003년  
환경 운동연합  
한국 복지재단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한국 심장 재단  
사랑의 대바자  
수재민 돕기

2004년  
환경 운동연합  
한국 복지재단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아름다운 가게  
사랑의 대바자  
(대한적십자사)  
수재민 돕기

# 이라크 파병과 우리의 할 일

##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때 아닌테러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긴 역사를 통해

아무런 적대적 이해관계가 없었던 한국과 아랍사이에 생겨난 불행의 양극이다. 동시에 아랍과 이슬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편견의 폭도 그만큼 확산될 조짐이다.

마지코 보면 우리와 중동이 등을 저야 할 아무런 역사적 아픔과 이유도 없다. 오히려 멀리 통일신라시대부터 문화적 교류와 인적 접촉을 통해 우리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최첨단의 패션 감각과 삶의 방식, 유리제품과 카펫 등이 아랍상인들을 통해 이미 신라사회를 살찌웠고, 조선초기 화려한 과학과 예술의 르네상스를 열어준 원동력도 이슬람 문명에 힘입은 바가 컸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과 역법이 이슬람 과학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단적인 예다.

그리고 1970~80년대 건설과 상품시장으로써 중동은 우리 경제도약의 밑거름이었다. 대망의 100억불 수출과 1,000불 국민소득 시대를 열어준 견인차도 중동이었다. 지금도 그들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고속도로와 다리는 물론 도시와 국가의 상징



물이 되어버린 많은 건축물이 한국업체의 작품이다. 최근에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휴대폰,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석권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은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드라마가 상영되면서부터는 이제 'Korea'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삶의 한 부분

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 중동이 테러리스트의 온상처럼 비쳐지고 있다. 그들은 극소수다. 대중적 지지기반도 정치적 성공 가능성도 없이 극단적인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것이다. 지난 12년의 경제제재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미국에 대한 복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지난 25년간 내가 만난 대부분의 아랍인들은 참으로 선하고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공동체 전체에 한 톨의 양식이라도 남아 있는 한 굶주리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법칙이고 깨달음이다. 도움을 청하는 이웃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보살핀다. 명예와 전통가치의 덕목을 그들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

지금 아랍인들의 반미감정이 가장 증폭된 시점에 자이툰 부대가 독립을 원하는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지역에 가 있다. 터키, 이란, 이라크, 아랍 등 누구도 쿠르드의 독립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군대는 그저 인도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에 머물러야 한다. 동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은 전쟁의 참화로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다. 예를 들면 미군의 공습으로 부서진 모스크를 문화와 종교가 다른 우리가 복원해주는 제스처 같은 것이다. 이라크와 인근 아랍 국가들의 종교 지도자와 유력 인사들의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친한국적 문화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참에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도 급선무다. 14억 57개 국가에 대한 기초적 연구 인프라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시대를 헤쳐간단 말인가? (人間)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1953년 생 / '79 한국외국어대 터키어학과 졸업 / '82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중동지역학 석사 / '88 터키 이스탄불대 대학원 역사학 박사 / '88~89 터키 국립이스탄불 마르마라대 역사학과 조교수, OIC 이슬람문화연구소 연구원 / '91~현 한국이슬람중앙회 이사 / '93~현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94~현 한국민족학회 회장 / '95~98 한양대 민족학연구소장 / '01~현 한국이슬람학회 회장



11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 인간개발 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끌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와 방향

1375회 11월 4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 최고의 IT강국, 자동차·조선·철강·반도체 세계 5대강국, 12대 무역대국이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국민소득 1만불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작년보다 11단계나 떨어진 29위로 평가하고 있어 오늘의 한국경제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만불에서 2만불을 달성하기까지 평균 9.2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80년대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던 신흥공업경제국으로서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한 국가들이 국가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과감한 개혁과 정책 일관성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는 실로 막중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표방한 것이 정부혁신이다. 기존의 업무수행절차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철저한 재설계를 통해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등을 개선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이 바로 모든 개혁의 출발이자 마지막이라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모습은 지난 탄핵사태 이후 또다시 실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으로 국가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어 향후 국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2003년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허성관 장관을 초빙하여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된 내용을 들어보고 혁신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 동아대 상학과 졸업(1970)
- ▲ 美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1982)
- ▲ 美 뉴욕주립대 경영학 박사(1986)
- ▲ 한국은행(1970-76)
- ▲ 한국생사주식회사 기획실 과장(1978-79)
- ▲ 뉴욕주립대 경영대학원 연구조교, 시간강사(1980-85)
- ▲ 뉴욕주립대 경영대학 조교수(1985-88)
- ▲ 동아대 경영학부 교수(1988-02)
-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연구분과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1990-98)
- ▲ 동아대 경영문제연구소장, 도서관장(1996-99)
- ▲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1999)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2002-03)
- ▲ 해양수산부 장관(2003)
- 〈저서〉 시민주체의 부산 만들기, 전략적 원가 관리, 경영과 현실, 회계원리 외



## 네덜란드 개성상인이 보는 한국경제와 2만불로 가는 길

1376회 11월 11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박영신** 보나미텍그룹 회장

한국경제가 새로운 실험대 위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 급변했고 과거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한국경제의 위기는 외환부족과 대기업 부실에서 비롯된 97년의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 노사갈등, 가계부실, 청년실업, 투자위축 등 주로 내부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여기에 북한 핵문제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세계경제의 불안한 회복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개방경제 가속화 추세 등 외부요인도 한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에서 지난 25년간 유럽시장을 무대로 유태상인, 구라파상인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실크로드의 현대판 상인으로 불리고 있는 동양인이 있어 한국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시장에서는 이미 고유명사처럼 불리고 있는 '빈치스타'라는 브랜드를 개발한 보나미텍그룹의 박영신 회장이다. 특히 박 회장은 회사 내에 도제훈련코스인 '빈치스타 MBA 코스'를 설립해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를 전문적인 '국제상인'으로 성장시켰다. 이런 그의 성과는 세계 각국의 언론으로부터 한국 개성상인의 후예로서, 장보고 상인정신을 직접 보여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기업가, 신용을 생명처럼 중시하는 기업가로서 그 동안 경험했고,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전략을 강연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박영신 회장을 초빙하여 네덜란드의 개성상인이 바라보는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2만불 시대의 가능성에 대해 들어보기로 한다.

- ▲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1973)
- ▲ 경기대 경영학 명예박사(2001)
- ▲ (주)선경 무역부 입사(1974)
- ▲ (주)선경 네덜란드 지사 주재원(1976)
- ▲ 네덜란드 - 미국 보나미텍(주), 팩스 트레이딩(주) 창업(1980)
-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 부설 유럽연구소 '유럽통합' 과정 연구수료(1981)
- ▲ (재)국제법률경영연구원 창업 멤버 및 수석 고문(1990)
- ▲ 네덜란드 교민회 회장(1993)
- ▲ EC(유럽공동체) 주최 '유럽 각국 상공회의소장 회의' 유일한 동양인으로 참석 주제연설(1993)
- ▲ 네덜란드 팩스 무역 유럽(주) 대표이사, 미국 팩스 유럽 패션(주) 회장, 빈치스타(주) 대표이사(현)
- 〈저서〉 나는 네덜란드 개성상인, 네덜란드 개성상인의 국제경영 이야기, 히딩크를 키운 나라 네덜란드



## 한일관계 발전으로 만들어 가는 신아시아주의

1377회 11월 18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백진훈** 일본 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20세기는 서구자본주의가 중심으로써 경쟁, 대립, 전쟁이 주요 주제였다면 21세기에는 공생, 교화, 평화의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시장은 정치, 경제, 문화를 통틀어 세계를 움직일 만한 역량을 키우고 있어 향후 아시아 각국의 연결고리 형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를 이끄는 것은 이미 아시아시장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가운데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 한국과 일본이다. 그 동안 우리는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들로 인해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관점을 고수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후에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변화라는 것은 21세기 아시아에서의 역할과 미래사에 관한 논제라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본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 발전에 의한 신아시아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치가가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 정치 사상 최초의 한국계 인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백진훈 민주당 의원이다. 아버지가 한국인인 백 의원은 조선일보 일본지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조선일보 일본어판 웹사이트를 만드는 등 일본 사회에 한국을 이해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특히 백 의원은 진정한 한일우호관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일본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현재 국회 내에서 의원연맹을 결성해 한일교류회의 실현에 도달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신진기에 정치가의 한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백진훈 의원을 초빙하여 한일 양국의 전략적 연대가 국제질서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전망해보고 EU의 아시아관인 아시아연합 창설의 첫 번째 행보로써 한일 연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日 일본대 건축공학과 졸업(1983)
- ▲ 日 일본대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과정 수료(1985)
- ▲ 조선일보 일본지사 입사(1985)
- ▲ 연세대 어학당에서 공부(1986)
- ▲ 조선일보 일본지사 부지사장(1990)
- ▲ 조선일보 일본지사 지사장(1994-04)
- ▲ 일본국적 취득(2003)
- ▲ 日 참의원의원선거비례구 민주당 당선(2004)
- ▲ 日 국회 정책심의회 부회장, 국제구 부국장, 예산위원, 외교방위위원, 북조선 납치 문제 등에 관한 특별위원



## 글로벌시대의 기술혁신과 국제협력 과제

1378회 11월 25일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밸류룸  
**이종현** 경북대 전자전기컴퓨터학부 교수

새천년의 화두는 '혁신'으로 우리는 수년전 대기업들의 침몰과 금융기관들의 뼈아픈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피부로 느꼈다. 이는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혁신의지와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다.

글로벌시대란 세계의 모든 국가가 연동하여 작동되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시대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동시에 정보와 지식이 전달되는 지식기반시대라는 뜻이다. 모든 지식은 첨단기술의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고 습득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안에는 온갖 첨단 기술이 가득 차 있으며, 인류문명의 변천 그 이전에는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잃든 좋은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IT, BT, NT 등 신기술들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없다면 정치가, 기업가들이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시대를 네트워크시대라고 한다. 국내적으로는 지역혁신을 통한 클러스터의 구축, 국제적으로는 공생을 위한 이해와 타협의 네트워크시대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대 지역'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Asian Community 구축을 목적으로 1997년 '아시아 사이언스파크 협회(ASPA)'가 설립되고 그 활동이 8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의 협력에서 지역문화의 상호이해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AU(Asian Union)를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아시아 사이언스파크 협회 회장 과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초대회장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현 경북대 교수를 초빙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협력의 가능성과 나아가 지역혁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경북대 전자공학과 졸업(1972)
- ▲ 경북대 대학원 전자공학 석사(1976)
- ▲ 프랑스 그레노블 국립공대(INPG) 공학 박사(1981)
- ▲ 경북대 조교수, 부교수, 교수(1982-현)
- ▲ 프랑스 INPG 교수(1985-86)
- ▲ (사)한국센서학회 이사(1993-02)
- ▲ 경북대 산학협력단 단장(1996-97)
- ▲ 경북대 정보통신사업단 단장(1996-98)
- ▲ (사)대구테크노파크 단장(1997-98)
- ▲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 고문(2002-현)
- ▲ 아시아 사이언스파크 협회(ASPA) 2, 3대 회장(2002-현)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전문위원회 위원(2003-04)
- ▲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초대회장(현)
- 〈상훈〉 녹조근정훈장
- 〈저서〉 센서공학, 전자재료공학실험



제1372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2004년 10월 14일 조선호텔 삼국루

# 세계속의 한국인, 그 성찰과 새로운 모색

이 광 규 재 외 동 포 재 단 이 사 장

**우리** 해외교포들이 오늘날 한국을 있게 하는데 어떠한 공로를 했는가. 새마을운동을 했을 때에는 재일 교포들이 엄청난 돈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경상도에 재일 교포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이 자신의 마을에 새마을 회관을 짓고, 농로를 고치고, 다리를 놓고, 학교의 품금을 사주면서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러한 재일 동포들의 원조가 없었다면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빠른 시일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는 따뜻한 제주도에서 감귤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감귤의 묘목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 재일 교포이다.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성심, 성의껏 도와주고 있다.

## 재외동포는 새마을운동 등 한국 경제개발에 숨은 공로자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중공업화를 시작했다. 그때 재미교포들이 우리에게 두뇌를 주었다. 당시 미국에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6,000명 정도 되었는데 그 6,000명 중 절반 이상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3년씩 우리나라에 와서 크게 공헌했다. 그리고 1990년대 일산과 분당을 만드는 고도성장을 할 때 중국의 교포들이 노동력을 제공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0만 명의 외국인 불법노동자가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 동포이다. 남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여자들은 식당에서 일하거나 간병인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결국 재일교포는 경제적으로, 재미교포는 두뇌로, 재중교포는 노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해준



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성장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 그러나 이 공로를 별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재외교포들의 수는 630만명이다. 나는 재단을 대표해서 670만명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유는 재일 교포가 63만명인데 이것은 40만명에 가까운 귀화인을 뺀 수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의 귀화는 미국에서의 귀화와는 의미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일본에서의 귀화는 항복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 특히 1960년대에는 민단과 조총련이 싸우면서 일본에 귀화한 것을 아주 민족반역자로 취급해서 제적을 시켰다. 재일교포는 이들까지 합쳐서 120만명 정도 된다. 민단에게 요즘은 국제화 시대이므로 이들에게 모두 포용을 하라고 권하자 절대 못하겠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15만명에 달하는 입양아들이 있다. 이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한국인으로 등록을 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20만명에 달하는 국제결혼자가 있다. 이 사람들도 어느 지역에서는 한인회에 등록을 해주고, 어느 지역에서는 한인회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까지 합하면 70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에 약 230만명, 중국에 약 210만명, 일본에 63만명, CIS에 53만명, 캐나다에 17만명, 멕시코와 남미에 10만명, 유럽에 9만명이 있다. 전체 700만명이 173개국에 분포되어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은 미국, 중국, 일본, CIS지역 4개 강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다.

금년에 러시아 이민 140주년 기념식을 했다. 1860년대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1기는 북쪽(중국과 연해주)으로 간 사람들로 농사를 주로 짓기 위해서였으며,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한국이 국권을 상실했을 때 많은 의병들이 그곳으로 나가서 활동했다. 1910년 한일합방을 당했을 때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마지막 물결이 대거 북쪽으로 갔다. 무력항쟁을 하면서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들이 1920년에 일어나게 되었다. 1919년부터 1940년까지(2기)는 이민의 방향이 일본으로 쏠리게 된다. 일본에 간 사람들 중에 독립운동가는 없었다. 1937년 이전에는 대부분 노동자들이었으나 1937년 이후에는 일본이 청·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징병이나 정신대(20만명)로 끌려가게 된다. 해방되었을 때 200만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3는 돌아오고 1/3이 일본에 남아서 재일교포가 된 것이다.

1945년부터 1965년까지(3기) 20년 동안은 이민사에서 소강상태가 된다. 이 시기에는 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국제결혼, 입양아, 유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1965년은 우리 이민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이다. 그 해에 한미조약이 맺어지면서 미국이 새로운 이민법을 만들어서 아시아 각 나라에 2만명의 쿼터를 주어서 정식으로 2만 명이 이민을 가게 된다. 오늘날 미국이민의 역사는 100년이라고 말한다. 1903년부터 1905년까지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간 사람들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고 1965년을 전후로 해서 남미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다. 1962년에 독일의 광부와 간호원으로서 몇 명씩 가기 시작해서 1965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4기)의 이민자들은 유럽의 백인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된다. 1975년 월남전이 끝나는 해에 당시 월남에는 군인을 제외한 한국의 기술자, 노무자들이 약 5만명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오지 않고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갔다. 이 사람들은 1965년부터 1975년까지의 이민자들과는 전혀 방향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르고, 비즈니스도 다르다. 1975년부터 IMF가 일어날 때까지는 주로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백인 문화권이 아닌 곳으로 나갔다. IMF이후에는 방향이 없이 아프리카, 중동 등 안가는 곳이 없다. 1기부터 4기까지는 지역과 방향이 있었는데 IMF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흩어져버렸다. 요즘에도 이민박람회를 하면 수만명이 몰린다. 지난번에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해 주었는데 나는 많아봐야 4~5만명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당시에 18만명이 등록을 했다. 상당수의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재외동포들은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평가받고 있어,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



1기부터 4기까지 이민자들의 공통점은 다들 가서 고생을 했다는 점이다. 각각의 사업들이 눈물겹지 않은 사람이 없다. 또 이들은 위기와 어려움을 성실로써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위기 속에서 허물어져 버리는 민족들이 많다. 알콜이나 마약에 빠지기 쉬운 데 한국민족은 특이하게 역경에 부딪힐수록 성실로써 극복하려는 민족이다.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모두 성공했으며, 희망을 2세의 자녀교육에 두는 특이한 민족이다. 자신의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자녀의 교육에 희망을 두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민족이다. 어느 지역을 가도 모범적인 소수민족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CIS지역, 중국에서도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족이라고 해서 소위 일본을 제외하고는 1등가는 모범적인 소수민족이다. 일본에서는 차별과 편견이 아주 심하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Ethnic business로 유명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세탁업, 식료품업, 미용재료업(뷰티서플라이)이 그것이다. 미국에는 미용재료가 백인용과 흑인용 두 종류가 있다. 백인용은 주로 피부관리이고 흑인용은 헤어와 관계된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대부분 유태인들에게 직업을 인계 받는다. 유태인들은 노년기가 되어서 자신의 사업을 자녀에게 인계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전부 화이트칼라가 되어서 아버지의 직업을 인계 받지 않는다. 이 때 한국인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유태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뷰티서플라이에는 흑인들의 샴푸와 머릿기름이 있다. 흑인들의 머리는 곱슬머리여서 빗지 않고 그냥 두면 살을 파고 들어간다. 머리가 바람에 나부끼는 것이 흑인들의 평생 소원인 것이다. 흑인들의 머리에 들어가는 샴푸와 머릿기름의 종류는 약 200

종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들을 유태인들이 독점을 해서 생산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아주 비싸게 팔았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임대 받은 후에는 이익을 적게 남기면서 아주 싼값에 팔았다. 그러면서 흑인 뷰티서플라이를 한국인들이 인계 받아서 현재 전 미국에 가계가 6,000개가 있는데 100% 한국인 소유이다. 흑인들은 충동구매를 하는 사람들이다.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보고 돈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흠쳐간다. 2%정도는 도둑을 맞는다는 대답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업종이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아주 잘 운영한다. 우리가 이민을 가기 시작한 1965년부터 미국에서는 흑인운동이 일어나서 가발이 유행할 때 한국에서 생산, 운송, 소매까지 100% 독점했다. 미국에서는 세탁, 식품, 흑인 뷰티 서플라이 이 세 가지를 삼대 코리안 Ethnic business라고 부른다. 일본에도 세 가지의 코리안 Ethnic business가 있다. 첫째는 빠징꼬로, 80%를 한국인이 점유하고 있고, 빠징꼬 업계에서 도는 돈이 일본의 5대 자동차 회사에서 도는 자금과 맞먹는다. 둘째는 식당업이고, 셋째는 오사카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샌돌'이라는 것이 있다. 오드리 햅번이 가장 먼저 신었다고 해서 '햅꾸'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업은 최근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뷰티 서플라이의 한 예인데 두 가지 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첫째, 2세들이 이것을 인계 받고 있다. 2세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흑인들이나 상대하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보니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에서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는가,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에 아버지의 직업을 인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30, \$50, \$80하는 샴푸가 세 개 있다고 하자. 고객이 제품의 차이를 물을 경우 아버지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2세들은 완벽한 영어구사로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사려는지 물어보고 제품의 기능과 고객 취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 2세가 인계 받은 가게는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가게의 디스플레이도 변화시키고, 꾸준한 고객관리를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도매상으로 진출하게 된다.

둘째, 뷰티 서플라이에서 파는 모든 종류를 한국에서 가져간다. 그 중에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까지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3~5년 동안 도전을 받지 않고 잘 운영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공장의 기술자를 빼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1년 후에는 더 큰 공장을 옆에 세워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해서 한국인이 10달러에 팔면 이것을 아랍상인을 시켜서 2달러에 팔기 시작한다. 아랍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

온다. 지금 뷰티 서플라이가 전체적으로 위기상태이다. 중국의 싼 가격을 어떻게 방어하는가가 관건이다. 상대방과 같이 2달러로 가격을 내리던지 아니면 10달러에 대한 가격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상품이 한국에게만 위협이 아니라 재미교포들에게 굉장한 위협을 주고 있다. 이렇게 2세들로 인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중국상품의 도전으로 가게가 휘청거리는 곳도 있다. 이것은 뷰티 서플라이뿐 아니라 다른 전체 영역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 제3차 한상대회 제주에서 열려

#### 차세대 기업인 발굴, Leading CEO와 연결이 중요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중국의 '화상'에 견줄 만한 우리의 '한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금년에 3차 '한상대회'를 개최한다. 재단에서 3,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300만 달러의 기본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차적 기준으로 선발해서 현재 30명을 선정했다. 미국의 이종민 회장, 일본의 한창우 회장(뽕찌공의 대부)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에서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았더니 30명 정도가 되었다. 이번에 CIS를 돌면서 특히 러시아에 갔더니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40대의 아주 젊은 기업인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루분누르 장이라는 사람은 한국인 으로서는 러시아에서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제분공장을 하고 있었다. 커다란 7층 짜리 제분공장 건물이 세 개가 있었는데 자신이 전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제분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현재 7~8명 정도 있다. 중국에도 최근에 갑부가 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능하면 모아서 소위 'Leading CEO'로써 국내기업과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또 한가지 한상대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차세대 기업인들이다. 1.5세, 2세로 넘어가면서 한국과 특별한 관계 없이도 비즈니스를 잘 한다. 나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한국과 관계를 가진다면 본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산이나 교역에 있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우선 한국을 보라고 한다. 그러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길게 봐서 그들이 중년이 되었을 때 한국을 알고 한국과 거래를 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들을 한국에 와서 보게 하면 우선 자신들의 아버지와 대화가 된다. 결국 본인과 미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신의 부모와의 대화를 위해서라도 좋을 것이다. 차세대 지도자들을 많이 발굴하고 데려와서 Leading CEO들과 연결하는 일을 이번 한상대회의 커다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횡적인 유대감이 없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저 한국과 미국만 알지,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특히 요즘 중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횡적인 유대감, 즉 중국이나 일본, CIS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상호간에 많은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이 요즘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 해외교포들이 못 따라오고 있다. 역동적인 한국과 관계를 맺으면 그들에게도 훨씬 이로울 것이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네트워크를 잘 이용한다면 새로운 아이템 개발, 시장 확대, 마케팅전략 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미국에서 1.5~2세들의 성장이 눈에 띄게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LA에서 1만명 정도가 자기들끼리의 그룹을 만들어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워싱턴 DC에 갔더니 4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미국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는 젊은이가 20명 정도라는 사실이다. 뉴욕의 모임에는 1,400명 가량의 회원이 있는데 언론계, 법조계,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들을 잘 이용한다면 한국의 힘이 보통은 넘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젊은이들은 미국식이면서도 굉장히 밝고, 자기 부모세대와는 전혀 인상이 다르다. 거기에는 1.5세, 2세뿐 아니라 입양아들도 포함되어 있고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의 자녀들도 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우리나라가 참으로 대단한 나라라고 느꼈다. 이들의 힘을 한국과 연결시킨다면 아주 굉장한 힘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 재외동포들의 능력을 결집, 한민족의 발전 도모해야

요즘처럼 일본과 중국이 양쪽에서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길은 재외동포 700만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한민족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한상대회가 그 한 예로 1, 2차 대회는 서울에서 했는데 3차 한상대회는 제주도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제주도 대회는 내국인들이 많이 참석해야하는데 지역적인 문제로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 예정은 해외에서 900명, 국내에서 300명 정도 참가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외국에 있는 동포들을 도와주고 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제주도 개최를 기회로 지방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선전을 했다. 특히 해외지사에 관심을 두신 분들이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재외동포들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 민족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아주고 이번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상대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人間**



사진 :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원장

# 해운산업의 발전을 선도해온 영원한 해운인생

이 윤 수 NYK LINE 고문

해운산업은 연간 120억 달러에 달하는 운임수입을 올리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의 핵심 부분이다. 또한 조선, 항만 등의 연계산업을 주도하는 선도산업으로 항만개발, 하역, 도선, 해운중개업, 부대사업 등 다양한 직종의 고용을 창출하는 전천후 고용창출산업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해운산업에 평생을 몸담으면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을 주도해온 인물이 있다. 지난 9월부터 NYK LINE의 고문을 맡고 있는 이윤수 고문이 바로 그다. 1983년 설립된 '소양해운'에서 세계 최대 선박회사인 일본 NYK LINE의 한국총대리점 역할을 해오던 이 고문은 세계 대형 선사들의 글로벌화의 일환에 의해 NYK LINE이 현지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1978년 정부가 해운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정기선항로를 처음 개설할 때 북미항로 컨테이너 정기선을 취항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 고문은 그 동안 소양해운을 이끌어 오면서 한국해운시장의 선진화는 물론 NYK LINE의 선진해운 노하우를 국내업계에 전수하는 등 해운업계의 리더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아 우리 해운업계도 종합물류업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복합 솔루션을 제공해야만 생존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이윤수 고문을 만나 우리 해운업계의 발전상과 21년을 이어왔던 소양해운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그의 해운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이윤수 NYK LINE 고문

1936년 생 / '60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졸업 / '87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61 대한해운공사 / '66~'82 고려해운 이사, 상무, 전무 / '85 소양해운 부사장 / '89~'04 소양해운 대표이사 사장 / '90 한국무역협회 종합물류합리화위원회 위원 / '97 한국선박대리점협회 회장 / '98 해양수산부 해운진흥심의회 위원 / '02 한국항해항만학회 회장 / 현 NYK LINE 고문

고문님께서서는 소양해운 대표이사로 재직하시다가 지난 9월부터 NYK LINE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요. NYK LINE 회사소개와 함께 소양해운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NYK LINE은 1885년에 창립하여 내년이면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선박회사입니다. 운선선복은 800여척 4,400만 DWT(중량톤)나 되며, 정기선 부분은 'WORLDWIDE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자동차 전용선, 부정기선, TANKER(유조선), LNG선, 호박여객선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선박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종합 물류회사로서도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도 적극적으로 수송하고 있어 작년에는 컨테이너 화물 133,000 TEU, 자동차 32,000대, 일반화물 84,000톤, 그 외 원유, 철강 석탄 등을 대량수송하고 있습니다.

소양해운은 1983년 9월에 창립하여 올해로 만 21년이 되었습니다. NYK LINE의 한국총대리점으로서 지난 9월 1일 NYK LINE(KOREA)으로 현지법인이 설립될때까지 21년간 한국에서 영업활동 및 선박운항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해왔죠. 특히 소양해운은 세계 최대선사이며 선진기업인 NYK LINE을 통하여 한국해운시장의 선진화는 물론이거니와 선진해운 노하우의 전수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운업계의 리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음을 큰 자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선항로에서 한국의 서비스망 확충은 물론 정기항로의 안전화, 해운관행의 선진화에 전력을 다하여 우리나라 국적선과 함께 해양시장을 정상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적기수송을 통하여 무역발전에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대형 선사들은 글로벌화 과정에서 해외대리점들을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한국의 소양해운만은 세계대리점 중 'Best3' 중에 하나로 평가받을 만큼 업무성과가 좋다는 이유로 직영체제를 미루어왔지요. 하지만 시대적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직영체제로 전환해 이번에 NYK LINE(KOREA) 현지법인이 설립된 것입니다. NYK LINE과의 관계는 1973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벌써 32년이나 되는데 일본 기업이 한국에 여러 산업에 투자를 했지만 32년 동안 아무 잡음 없이 원만하고 바람직한 사업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대단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 동안 소양해운을 이끄시면서 느낀 점이나 보람은 어떤 것인가요. 업적도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해운 100년사를 돌아보면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에 의하여 처음으로 부산, 인천, 원산항이 개항이 되고, 1900년 6월에 대한협동우선회사가 창립함으로써 최초의 민간선사가 탄생, 5척의 선박을 소유하여 외국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후 일제의 강점으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가 해방과 더불어 1961년까지는 한국 해운의 재건기로 대한해운공사를 필두로 11개의 해운회사가 본격적으로 국제항로를 취항하게 되었지요.

저는 우리나라 해운의 성장기와 도약기인 1962년부터 85년까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강력한 해운진흥정책



▶ 이윤수 고문은 해양대에 진학하면서 평생 해운업계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 한국화주들을 초청한 네모토(Nemoto, 왼쪽에서 네번째) 전 회장과 함께

을 추진하여 우리 화물은 우리 선박으로 수송한다는 목표로 국적선의 선대화대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었죠. 특히 1978년에는 세계 정기선항로에 국적선사의 컨테이너선 4개사를 선정하여 외국선사와 협조배선을 실시해 북미항로, 구주항로, 호주항로를 처음 개설했는데 이 때 고려해운에 재직하면서 북미항로 컨테이너 정기선을 취항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 후에도 우리나라 해운진흥정책 및 항만장기개발정책, 컨테이너 화물물류체계 합리화 등에도 깊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열심히 일한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특히 1985년 '해운의 날'에는 동탑산업훈장을 수여 받아 대단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평생을 해운산업에 종사하시면서 해운산업 발전에 큰 공헌도 하셨는데요. 고문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 해운은 2003년말로써 국적선 선복은 432척, 1,682만 DWT(중량톤)로 수출입화물 4억2,600만톤을 수송하여 운임수입이 118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8위의 해운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에는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동시에 참여정부에서도 동북아의 물류



중심이 되기 위하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해운산업의 발전방향으로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우리 국적선사가 세계제일의 서비스, 세계제일의 가격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Global Mega Carrier'로 성장하여 현재 주력하고 있는 아시아, 미국, 구주시장에서의 주도권은 물론이거니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 아시아 및 대서양시장 진출에도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화주들의 'Supply Chain Management'의 니드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육·해·공 및 물류센터 등을 갖춘 다양한 종합물류업자로서의 역할을 지금부터 적극 확대해서 다양해지고 있는 고객의 니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 솔루션 제공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NYK LINE은 일본계 다국적 해운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기업으로부터 우리 업계가 배울 점은 어떤 것인가요.**

NYK LINE은 21세기 장기 그룹 경영의 비전을 1986년부터 설정하고 철저히 시행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내용은 'Global Logistics Mega Carrier'로써 정기선, 부정기선의 경쟁에서 세계제일의 서비스와 세계제일의 가격경쟁력을 갖춘 해운업자로 도약함과 동시에 물류사업을 확대하여 글로벌 물류전략을 전개하고 해운업과 종합물류업을 본업으로 하여 세계 1위의 선사지위를 한층 더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운도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해운, 물류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Worldwide Network'를 갖춘 'Global Mega Carrier'로의 도약과 함께 종합물류에서도 지금부터 적극 진출해야만 생존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문님께서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셨는데요. 특별히 해양대학을 지원한 동기라도 있으신지요.**

저는 경남 하동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부산사범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교사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교사보다는 다른 진로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경남고에 진학하면서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처음

에는 성격상 의대에 진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산이 항구도시이고, 주변분들이 바다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도 했고,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해양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해외진출의 길도 다양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대에 진학한 것이죠.

당시 해양대학은 입학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했지만 전액국비지원으로 학업을 할 수 있었고 AID원조자금으로 신축교사가 만들어져 아주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대에서는 학교생활 3년을 마치면 4학년 1년 동안은 승선실습을 했습니다. 그 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동남아, 미국 등의 항로에 취향하고 있었는데 이곳들의 발전상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넓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래가 불투명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 역할을 해운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에 해운계에 제 일생을 투신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 정말 보람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문님께서 연구원의 역사와 함께 해오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연구원과의 인연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78년에 우리나라에서는 해운진흥정책의 하나로 세계주요 정기항로에 컨테이너 항로를 투입할 4개 회사를 지정했습니다. 이 때가 바로 우리나라 해운의 도약, 성장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해운의 정기선을 개설하고 선복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모르고는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이나 전망을 몰라서도 안되죠.

이런 것들은 평소 언론 등을 통해서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지만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인간개발연구원이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조찬문화를 시작해서 산업, 세계경제 동향 등 많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기에 참여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76년부터 연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조찬회에 참여하면서 제가 바라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특히 이중기업동우회를 통해 총론뿐만 아니라 각론에 가셔도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또한 저는 당시 고려해운의 전무로서 회사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동향이나 경영에 있어서 대학원에 다닌 것 이상으로 좋은 공부라 되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구원에 관여하시면서 고문님의 경영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연구원의 조찬세미나 등 좋은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인생관, 경영관을 정립하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LMI 리더십교육은 개인적이나 회사의 입장에서든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 경영철학이 '인간중심경영으로 기업은 사람이다'입니다. 따라서 교육과 윤리를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종업원 하나 하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가 하는 것은 경영

자의 몫이요,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는 종래의 물질중심경영에서 인간 중심경영이 글로벌시대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영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전 종업원 모두의 생활터전이며 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일을 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고 개인과 회사가 공존공영할 수 있을 때 자기자신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어떻게 접목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LMI 교육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고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 회사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본인으로서 어떤 자아실현과 보람을 느끼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 직접 직원들이 참여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부들, 직원들과 열심히 참여해서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서 그것을 끌어내어 활성화시키는데 LMI의 폴 마이어 리더십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에 비해 고문님께서서는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또 취미생활도 소개해주시죠.**

건강관리는 여러 가지 요법이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회사일, 가정생활에 있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대인관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반발 내지 한발만 양보해도 이 세상에서 해결 안 될 일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발 양보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전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상대를 이기려고 한다면 상대도 마찬가지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마치 밤이 오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좋은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고를 긍정적으로 가집니다. 회사일 자체도 긍정적 사고 이면에는 철두철미한 정보와 실천계획과 그 나름의 벤치마킹을 준비해 일에 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78년부터 헬스클럽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늘 컨디션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문님께서서는 그 동안 저희 인간개발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이 발전하는데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경영자모임이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아카데미'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옆에서 보면서 이 시대에 맞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늘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여러 사업과 비전이 있지만 이런 것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연구원 다음의 30년 역사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바라는 것은 글로벌시대에 맞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동포네트워크를 하루빨리 형성해 해외동포 자원을 활용해 한국경제가 글로벌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양한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인간개발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자원과 인재를 확보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되면 해외에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해외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고, 다시 유턴해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으며, 해외동포는 물론 국가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연구원이 가교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문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 책 읽는 국민 학습하는 사회를 향한 도전

권 경 현 교 보 문 고 ( 주 ) 사 장

## 지식사회에서의 기업경쟁력

권력이 총부리에서 나오던 시대가 가고, 부의 창출이 거대 자본에서 나오던 시대도 갔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빌게이츠이고, 50년 후에 살아남을 세계 최고의 기업도 아마존과 이베이가 합병한 '아마존베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우리는 놀라움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지식이 부의 원천이자 권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식사회가 본격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사회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탁월한 지식근로자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내노라하는 대기업을 모두 인재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지식근로자를 확보하자는 전략인 듯싶다. 지식경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 지식경영 어떻게 할 것인가

지식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는 지식기업이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지식경영모형은 아직 정형화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식창고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는 정도인데, 이는 정보경영 단계이지 지식경영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데이터가 통계체계에 따라 가공되면 정보가 되지만, 정보가 지식이 되려면 사람의 두뇌나 가슴을 거쳐 생명력을 얻을 때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직원의 사고력, 창의력, 지성, 감성, 영성이라는 근원적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창고를 잘 갖추고 정보를 많이 저장해도 지식경영은 어렵다고 본다. 지식경영을 하려면 지식근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지식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지식창고를 갖추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

## 지식근로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식근로자는 단순히 지식이 풍부한 자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열정으로, 의지로 실현시켜 나가는 자들이다.

학교 교육이 지덕체(智德體) 전인교육을 표방하고 있듯이 지식근로자도 전인적 역량이 뛰어난 자여야 한다고 본다. 전인적 역량이란 지식, 기술, 태도, 습관, 체력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직장 내에서 자신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 권경현 교보문고(주) 사장

1951년 생 / '74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76 서울대 경영대학원 수료 / '73 교보생명보험(주) 입사 / '80 美보험대학(TCI) 연수 / '91~'92 교보생명보험(주) 이사, 상무이사 / '93 교보생명보험(주) 기획관리본부장 / '94 교보증권(주) 상무이사 / '99 교보생명보험(주) 전무 / '00 교보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부사장, 사장 / '02~현 교보문고(주) 대표이사 사장

자신의 목표란 직장 내에서의 성과목표도 포함되지만 성장목표와 더 나아가서는 인생목표까지도 관계를 지을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다. 목표가 분명하면 그에 합당한 역량을 스스로 개발하려는 욕구가 그만큼 강해지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목적인 역량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기업 내 학습시스템으로 독서경영을 권장하고 싶다. 독서경영은 직원들이 책을 읽고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놀라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책임기를 통해서 정보습득이나 지식축적 뿐만 아니라 생각과 태도를 바꾸게 되고 인격 성숙과 삶의 모습까지 달라지는 존재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식사회에 적합한 지식기업이 되고 지식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으면 지식근로자를 확보하고 양성해야하는데, 독서경영이 가장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점점 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교보문고는 이러한 독서경영 서비스를 제공함에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교보문고가 제공하는 독서경영 서비스가 보다 더 많은 기업에서 활용되리라고 믿는다. 책임기를 권장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에서 독서통신교육과 e-learning으로까지 다양하게 발전되면서 거부감 없이 접목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도입하고 활용하기에도 용이하다고 본다.

### 교보문고의 기업사명은 모든 사람이 역량을 키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故 신용호 창립자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보문고는 독서문화기반이 매우 취약했던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의미있는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길과 담당해야할 역할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18위에서 29위로 11위가 떨어졌다고 한다. 1위는 작년에 이어 여전히 핀란드가 차지하고 있는데, 핀란드의 국가경쟁력은 국민독서력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지금 ‘사람입국’의 가치를 내걸고 학습국가 건설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만간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리라고 기대해 본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책 읽는 국민 학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보문고는 오래전부터 책 읽는 국민 학습하는 사회 만들기에 나름대로 힘써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보다 더 강력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비전을 만들었다. 기업사명인 핵심목적을 ‘모든 사람이 역량을 키워 더

나을 세상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책 읽는 국민이 되어서 책 읽는 가정이 되고, 책 읽는 학교가 되고, 책 읽는 기업(학습기업)이 되고, 책 읽는 지자체(학습도시)가 되어 학습사회가 됨으로써, 학습국가가 되고 지식문화 강국이 되어 국민소득 2만불의 벽을 뛰어넘고 유태인보다 우수한 민족으로 세계를 이끌어 가는 한민족이 되기를 소망한다. 교보문고는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식문화 기업으로서의 사명을 구현코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人間



▶ 1월 리뉴얼한 인터넷 교보문고



▶ 교보문고 북마스터



▶ 교보문고 매장전경

# 농촌관광, 농촌도 상품이다!

강 신 겸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제53회 푸른 제천 아카데미 / 2004년 9월 23일



인간개발연구원은 10여년 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 제천 아카데미”는 제천시가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 참다운 인간성 및

건강한 가치관 정립, 지역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급속하게 변하는 21세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2003년 2월 6일 개강한 지방자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55회가 진행중인 푸른 제천 아카데미는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의 폭도 다양화되어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9월 23일에 ‘농촌관광, 농촌도 상품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53회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앞으로 1시간 동안 ‘농촌관광, 농촌도 상품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분이 많이 계실 것이다. 말씀드릴 순서는 ‘떠나는 농촌’, ‘숨막히는 도시’, ‘그리고 다

시 찾는 농촌’이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다시 찾는 농촌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떠나는 농촌

농촌이 참 어렵다. 2003년 11월 20일 여의도에서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그 때 여의도에 20만명의 농민이 모였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우리 농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우리 농촌이 죽어간다’, ‘부채를 탕감해라’, ‘FTA 안 된다’ 하는 말만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 가슴속에 과연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희망이 없다고 믿는 가 하는 차이이다.

갈대는 절대 바람에 꺾이는 법이 없다. 바람에 흔들릴 뿐이다. 왜냐하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고 그에 맞춰서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농촌은 안타깝게도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이 농사일이라고 농사만 짓겠다고 변화를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불어오는 바람에 꺾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농촌이 불어오는 바람에 갈대처럼 몸을 움직이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느끼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다.

### 강신겸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1993 한양대 관광학과 졸업 / '95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경학 석사 / '02 한양대 대학원 관광학 박사 / '93 교통개발연구원 관광연구실 위촉연구원 / '93~94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 '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수산경제연구부 위촉연구원 / '95~현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 '01 녹색연합부설 녹색사회연구소 '녹색관광위원회' 위원장 / '02 농림부 '농촌관광사업' 심사·자문위원

농촌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70~80년대 ‘移村向都’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다.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말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농촌에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원을 투자 했으면 최소한 110원을 받아야 자녀들 교육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90%는 100원 받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부채는 점점 늘어가게 되고 우리 농촌은 지금 거대한 양로원이 되어가고 있다. 농촌인구의 70%가 50세를 넘었다. 우리 주변의 농촌이 모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 가면 러브호텔, 가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농촌이라고 하지만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어정쩡한 곳이 굉장히 많다.

## 숨막히는 도시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뭔가의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도시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슴을 보듬을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것이 뭘까? 요즘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이라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산다. 그래서 아직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를 하게 되고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도시사람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 즉 기회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우리 농촌이 그 사람들을 데려와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관광이란 말을 한다. 왜 농촌에 관광을 갔다 붙였는가. 우리가 꼭 관광이라고 하면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관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농촌도 관광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농촌에 아직은 맑은 자연이 남아있고, 신선한 농산물이 있고, 인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서 도시민을 데려와 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관광개발을 할 때 ‘장소성(그 장소가 갖는 의미를 잘 살려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 있다. 강릉의 정동진이 뜬 이유는 ‘모래시계’가 TV에 나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장소에 대해 동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동진에 갔더니 러브호텔에, 유흥가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작고 한적한 시골 역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시골역을 연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다시 찾는 농촌

이제 우리 농촌 마을로 돌아와서, 요즘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농촌에 지원하고 있다. 마을에 몇 억씩 지원해서 살만한 농촌을 만들

겠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마을은 정부에서 14억이란 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농산물판매장을 하나 지었다. 하지만 그곳은 개장한지 3개월이 못돼서 문을 닫았다. 문제는 어떤 사람도 건물을 짓기 전에 여기서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지역 농산물이 서울의 대형시장이나 할인점, 동네 슈퍼와 경쟁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것이다. 결국 건물만 남게 되었고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저기서 무엇을 팔아야 할지, 우리 동네 농산물 어떤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나 받을 것인지, 역할분담을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름만 있는 농산물판매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농촌이 과거에 열심히 생산만 하던 것은 이제 끝났다. 물론 생산은 더 좋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생산만 가지고 경쟁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유통도 하고 가공도 하고 거기에 서비스까지 덧붙여서 팔아야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덧붙여 팔아야 한다. 그래서 농촌도 단순히 생산만 하는 생산기지가 아니라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거기서 쉴 수 있는 복합상품이란 것을 인식해야 한다.

## 희망의 농촌 가꾸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성공적인 마을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의 토고미 마을이라는 곳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산과 군인이 전부인 동네로 별반 자랑할 것 없는 평범한 마을이었다. 그런데 1999년 이 마을이 고향이 어떤 한 분이 먼저 내가 먹는 것이라도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리농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를 직접 사지 말고 분양을 하자, 신문에 광고를 내고 오리를 구입하면 가을에 그 쌀을 수확해 구입한만큼 햅쌀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도시 회원을 모집해보자고 했다. 그래서 이름도 ‘나눔의 농사가족’이라고 지었다. 이 행사에 무려 1,200명이 찾아왔다. 동네 생선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다. 그 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다. 쌀도 이제 선물이니까 박스를 만들어 담아보자. 그리고 그 안에는 종이나 비닐이 아니라 광목 쌀자루에 담아서 보내주자 하는 생각을 했다. 쌀을 받아 본 사람들 모두 만족해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마을을 만들어갔고,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량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토고미 자연학교’를 만들어 도시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키고 있다. 또 마을에 민박을 하기 위해 펜션



을 하나 지었는데, 이 펜션도 주변에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면회를 오는 부모들이 펜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현재 주말에 80%정도 예약되고 있다.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여 현재 도시회원들이 1,300명 정도가 되는데 매달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삼성전기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이것은 능력있는 젊은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연세가 많으면 많은 대로 역할을 나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쟁기질하는 체험을 맞게 해드렸고, 밥짓는 것은 할머니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이 마을은 작년에 5억 정도의 부가수입을 올렸고, 1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역할분담을 해준다. 그리고 도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역할분담을 시키고 행사를 한다.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부가 수익도 생기고 회를 거듭할수록 각 행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자신감이 생긴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미치지 않으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처럼 행정에서 그냥 사업중심으로 툭툭 던져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만큼 어렵기도 한 사업이다. 이 마을에도 몇몇 사람이 미쳐있는데 총무나 이장이 그런 사람들이다.

작품사진을 찍을 때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도를 어떻게 잡는지도 중요하지만 담은 카메라 전원을 켜는 것이다. 농촌관광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고 많이 물어본다. 나부터 한번 해보자 하는 호기심을 가져보는 것이다. 이것부터 시작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명확한 비전을 가져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화천의 토고미 마을의 비전은 도시생활에 찌든 4천만 국민들에게 따뜻한 고향이 되어주는 것이다. 고향에 와서 농산물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 추억을 만들어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친절 같은 고향이 되어주겠다는 것이다.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을에 강력한 테마를 만들어야 한다.**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팔 것인가 하는 것이다. 토고미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었다. 바로 ‘토고미 우리쌀’이다. 물론 이것 외에도 체험프로그램, 민박, 된장 등 팔 수 있는 것은 다 판다. 그런데 제가 브랜드를 말씀드렸는데 브랜드가 무엇인가. 사람들 생각은 천차만별로 다르다. 그래서 마을마다 같은 생각으로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번 왔던 사람을 다시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도시민들을 데리고 오는데 한 번 왔다 가면 솔직히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회원제 사업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마을에 몇 번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한 판매 방법으로는 믿음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네 번째는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주민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 계신 분들이 도와줘야 한다. 시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야 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그 지역을 다른 곳에 소개해 줄 수 있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 TV, 신문에만 나는 것이 홍보가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하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펼쳐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 사람들은 ‘어려워서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뭘 하라고 하면 겁부터 먹는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만든다. 작은 성공을 반복함으로써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일 것이다. **人間**

# 아름다운 꿈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지난** 10월 21일 밤, 세종호텔에서는 LMI(Leadership Management International)의 EPL 프로그램 수료자와 교육 중에 있는 사람들 100여명이 함께 한 <꿈이 있는 리더들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모임이 있었다. 요즈음처럼 살아가기 힘든 사회상황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색다른 모임이었다. LMI 자기개발 프로그램 수료자들로 조직된 '폴 마이어 리더십 클럽'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윤병철 회장의 "행복한 사회를 위한 퍼스널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포함한 이요셉 소장의 "건강한 삶을 위한 웃음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아름다운 행사를 가졌다. 아름다운 인생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뜻있는 모임으로 나의 마음에 아름답게 각인 되었으며, 함께 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새겨졌으리라 믿는다.

내가 서울대에서 「경영자 개발을 위한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명지대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한 것이 1968년이였다. 1970년 교수생활 초년시절 LMI의 창설자이자 세계적인 부호이며, 리더십, 세일즈맨십, 모티베이션의 대가인 폴 J. 마이어 박사와 서신 교환으로 첫 관계를 맺게 된 후 1972년 미국의 남동부 텍사스 웨이코에 본부가 있는 LMI그룹을 찾게 된 것은 나의 생애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수년 후에 내 생애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고, 굳게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성공철학과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Better World)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폴 J. 마이어와의 만남이 1975년에 (사)한국 인간개발연구원을 창설하게 되었고 이어서 LMI Korea라는 교육사업 법인을 설립하여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어 수천을 헤아리는 LMI 프로그램 수료자를 배출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리더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How to Bridge the Leadership Gap』은 폴 J. 마이어의 성공철학의 실천서이며 오늘날과 같은 리더십위기시대를 극복하는 자기혁신의 매뉴얼이다. 여기에 꿈이 있는 리더들의 아름다운 만남의 행사를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하여 「폴 J. 마이어의 리더십 실천계획 5단계」라는 한국어판 번역본을 내놓게 되었다. 이 책 속에는 'Negative Capability(부정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라는 이색적인 어구가

있다. 나는 인사말에서 'Negative Capability'를 내용으로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LMI와 함께 보낸 35년의 지난날을 회고해 보았다.

이미 고인이 된 마쓰시다는 일본이 낳은 위대한 기업인으로서 '경영의 신'으로 영원히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3가지 약점이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가난이었고, 둘째는 가난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소학교 4년 중퇴를 했고, 셋째는 몸이 허약했다. 마쓰시다는 이 세 가지 불리한 인간조건을 극복하여 첫째로 일본의 최고부자가 되었고, 둘째로 경영과 인생의 교훈과 지혜가 담긴 많은 저서를 남긴 최고의 지적 지도자가 되었고, 셋째로 섭생생활을 유지하면서 94세까지 장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헬렌 켈러 여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극복한 나머지 정상인이 감히 넘보지 못한 위대한 여성지도자, 인류의 지도자가 되었다. 마쓰시다와 헬렌 켈러 두 분 모두 'Negative Capability'를 잘 활용한 예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인생은 苦海'라고 했다. 나는 '苦生'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삶이 탄생되기 때문이다. 견디기 어려운 인생고를 이기려면 무엇보다 비전 즉 아름다운 꿈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그 내면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본능이 꿈을 꾸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꿈은 인생을 위대하게 키워준다.

꿈 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다(I have a dream)"가 생각난다. 스탠포드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클레이본 카슨이 엮어낸 마틴 루터 킹의 자서전에서 킹 목사는 다음과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제가 죽는) 그 날이 오면, 마틴 루터 킹은 자신의 인생은 남을 돕는데 바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날이 오면, 킹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날이 오면, 제가 전쟁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입장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날이 오면, 제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날이 오면, 제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꿈이라 하겠다. 이러한 마틴 루터 킹의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도 보다 살기 좋은 'Better People Better World'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LMI 프로그램에도 인간의 아름다운 꿈을 현실로 실현시켜 주는 과학적인 'Tool'이 있다고 자신해 본다. (人間)

# 서비스업은 평화산업이다

박영실 Service Power Academy 원장



## 토속 한국브랜드로 세계적 서비스에 도 전장을 내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어 오며, 예의를 모든 행위의 근간으로 삼은 유교의 이념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 왔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일상 생활에서 삼강오륜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작은 군자의 나라' 라고까지 불리어

오지 않았는가! 원래 예의는 남을 배려하기 위해 나의 몸가짐을 바로 하는 것이다.

예전부터 길 가던 나그네가 물 한 그릇을 청하면 정이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눈치 빠른 아낙들은 바가지의 물위에 버들잎 하나를 띄웠다고 하지 않는가. 너무 목이 말라 숨도 안 쉬고 물을 먹어 체할까 봐 버들잎을 띄워놓는 센스... 이런 센스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리라.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삼강오륜을 제대로 배운 규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 실천할 수 있었던 센스가 아니었을까.

## 가라앉은 동방친절지국

우리민족이 예의범절에 얼마나 뛰어났는가는 공대어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한국어의 존칭체계는 한국인도 지키기가 어려울 만큼 상대에 따라 다양하고 다양하다. '하다' 라는 동사만도 상대에 따라 '하게, 하거라' 등 많다. 이는 우리민족의 예절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의미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예전에 우리민족의 예절에 대한 가르침은 이런 공대어만큼이나 철저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 수저를 들면 아니 되며, 여인네가 치맛자락 소리가 너무 나도 안 되고, 비가와도 양반은 뛰는 경망함을 보이면 아니 되며, 옷을 때 요란하게 웃어도 안되었고, 아침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인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며, 부부간에 나이 차가 많다 하더라도 상호 존대를 해주는' 등 아름답고 철저한 예의범절들이 생활 곳곳에 녹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동방예의지국의 면모를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어글리 코리언' 이라고 해서 한국관광객을 '왕따' 시키고 있다. 영국의 모 항공사 스튜어디스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선이 바로 '런던-서울' 노선이라고 한다. 한국사람들의 몰상식한 행동들에 기가 질렸다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발을 앞좌석에 올려놓고 잠을 자는 사람부터 공짜 술이라고 계속해서 먹어대는 사람들, 세 명 이상 함께

박영실 Service Power Academy 원장

1970년 생 / 연세대 교육대학원 산업교육 석사 / '93~02 삼성에버랜드(주) 경영지원실 서비스 아카데미 과장 / 경기대 사회교육원 '국제 세크리터리 과정' 겸임교수 / 2002월드컵 친절전문위원 / 현 미스코리아 이미지메이킹 전문강사, KBS 제1, 2라디오 진행, 수원시청 자문위원, 명지대 겸임교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참여교수 및 자문위원, 매주 수요일 SBS '해결 돈이 보인다' 서비스 전문감정단 출연

가는 승객들은 안전벨트는 매지도 않고 아예 둘러앉아 담요를 깔아놓고 고스톱을 치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번번이 발생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베이징골프클럽에서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한다. ‘한국인 출입금지. 일본인 환영’

이렇게 동방친절지국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우리 선조들의 그 여유있는 품위들이, 예절들이 근대화가 되고 점점 살기가 각박해지면서부터 퇴색하기 시작했다. 여유있던 걸음걸이는 바빠졌고 품위있던 말투는 욕으로 변졌고, 포근했던 표정은 험상궂어졌다.

### 선진국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서비스

보통 서비스가 발달한 나라는 선진국이다.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 시대 실학자인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봉사다’라고 가르쳤다. 서비스 개선 운동은 살기 좋은 나라, 밝고 친절할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되어 서비스 강국으로 가는 길을 더욱 탄탄하게 해준다.

### 우리민족은 情의 민족이다

『대지』의 작가 펠벅도 인정한 우리의 ‘정’ 문화는 따뜻함의 극치로 평가받고 있다. 경주의 시골저녁에 노을을 바라보던 펠벅은 달구지를 끌고 가는 농부를 보자 의아해 했다. 이유는 농부가 지게에 벼집을 한 짐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 농부라면 본인 어깨에 메일 벼집을 소가 끌고 가는 달구지에 올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그 달구지에 농부도 탔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펠벅이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무릎을 쳤다고 한다. 짐승인 소지만, 너무 무거운 벼집을 짊어지게 할 수 없었던 한국농부의 정을 느낀 것이리라! 어디 그 뿐인가. 먼길이라도 떠날 때는 짚신을 생기성기 틈을 넓혀서 땅위의 벌레들이 밟혀 죽지 않게끔 배려하는 그 정은 서비스 중에서도 최상품이다.

여유와 넉넉함이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정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려는 노력이 바로 ‘Sense’이고 우리 표현대로 하면 ‘눈치’인 것이다. 센스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 눈치빠른 사람은 밥 한끼라도 더 얻어먹는다. 이런 눈치감각이 뛰어난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사람이다.

어디 그 뿐인가. 우리문화에는 ‘덤’의 문화가 있다. 백화점이나 슈퍼에 깔끔하게 포장된 콩나물을 선호하는 신세대가 점점 늘어나지만 아직도 시장에서 사는 콩나물거래의 정을 잊지 못하는 옛날 분들이 많다. 한 되를 봉투에 담고 난 후에 한 주먹 소복하게 담아서 ‘예이고, 기분이다. 이 건 덤이에요!’라고 장사주인이 말하면 손님은 입 꼬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할머니의 그정이 담긴 덤 때문에 매일 온다니깐요’라고. 이런 덤은 바로 서비스가

다. 이런 덤을 받은 손님은 그 덤을 준 할머니의 정을 잊지 못한다.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바로 그 할머니에 대해서 이미 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할머니를 배신 할 수 없는 정, 바로 그것을 ‘충성도’라고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멀어도 자주 오게 되고, 또 추운 날씨에는 고구마 하나라도 정성을 듬뿍 담아 콩나물할머니의 차가운 손에 꼬옥 안겨 주는 것이다. 주인은 손님에게 덤을 통해서 정을 듬뿍 주고 손님은 주인에게 덤을 통해서 충성도를 듬뿍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 문화인 우리나라야말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성숙된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봉사자인 동시에 봉사를 받는 손님인 격이다. 따뜻한 입김이 넘치는 그런 사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 -플러스사고1-

한 나그네가 어두운 길을 등불을 들고 가고 있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환한 등불이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상대는 장님이 아닌개! 궁궁했던 나그네는 그 장님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앞이 안보이시는 듯 한데 등불을 왜 들고 다니십니까? 등불이 있다고 해서 더 잘 보이는 것은 아닐텐데요?” 그 때 장님이 한 말은 “물론, 이 등불이 제게는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이 등불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저와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는 있지요. 이 등불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불입니다. 상대도 위하고 또 저도 위한거지요.”라고.

그렇다. 서비스라는 것은 바로 타인도 위하고 나도 위한 것이다. 상대는 이 등불로 인해 그 장님을 피해 갈 수 있으니 등불이 고맙고, 그 장님은 상대와 부딪치지 않을 수 있으니 등불이 고마운 것이다. 이 등불은 고맙고도 또 필요한 존재이다. 등불은 바로 친절과 다를 바 없다. 친절은 바로 상대를 위하면서 동시에 나를 위하는 존재인 것이다. 상대방에게, 또는 고객에게 관심과 배려, 성의를 제공하는 것을 ‘친절’이라 한다. 친절을 제공받은 사람이 친절을 베풀 사람에게 감사하게 생각해 칭찬과 격려, 성원을 해주는 것을 ‘인정’이라고 한다. 친절과 인정을 서로 주고받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며 감동까지 하게 된다. 그야말로 ‘Win-Win’이고 상생이며 쌍방간 선순환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처럼 서비스의 개념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보람, 성취와 행복을 느끼게 하는 선순환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서로 즐겁고 행복한 사회관계가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서비스업은 평화산업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무심코 한 서비스가 평화를 위한 날갯짓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아지는가? 人間

# 회원소식



• **(주)세스코의 전순표 회장**이 지난 9월 31일 국제로타리 3560지구(서울 강북지역)의 차차기 총재로 지명되었다. 이로써 전순표 회장은 2006년~2007년 지구총재로 취임하게 된다.

• **삼성석유화학(대표 허태학)**은 지난 10월 16~17일 울산사업장에 퇴직임원(OB) 19명을 초청, 회사와의 유대를 다지는 '홈커밍 데이(Homecoming day)'를 가졌다. 회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획한 홈커밍 데이는 지난 30년간 땀과 애정을 쏟아 회사 발전에 밑거름을 만들어 준 퇴직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향후 회사와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로 마련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 **이시형박사(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는 지난 10월 21일 여의도 KT빌딩에서 <어떻게 지킨 조국인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 **강석진 CEO 컨설팅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인사동 하나로갤러리에서 제7회 명사미술전을 열었다. 이 명사미술전은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 열한 분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예술과 사회의 거리를 좁히고 문화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 **시사여성주간신문 우먼타임스(사장 신숙희)**는 지난 10월 21일 조선호텔에서 제3회 2004 여성소비자가 뽑은 <여성사랑 베스트 기업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 **한국잡지협회 이심 회장**은 39회 "잡지의 날"을 기념하고 그동안 잡지문화 발전과 언론창달에 기여하신 분들을 위한 시상의 자리를 아래와 같이 갖는다.

- 아 래 -

- 일 시 : 2004년 11월 1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심갑보 삼익LMS(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10월 21일 19시~21시까지 경북 구미 소재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최고위관리자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전략 - 삼익LMS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 **웅진그룹 윤석금회장**은 지난 10월 26일 여성신문이 선정한 '제1회 좋은 기업인상'을 수상했다. 여성신문은 윤 회장은 고학력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성 임원 발탁에 힘쓰는 등 여성 인재의 발굴과 육성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공로를 높이 평가해 좋은기업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하였다.

•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은 10월 15일 인천에서 재능대학 증축 준공식을 내외 귀빈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관동실업 김석기 사장**의 장녀 효선양의 결혼식이 지난 10월 16일 서울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락처 : 02-2671-5365 (직장)

• **한국야쿠르트 백영진 상무**의 장녀 은정양의 결혼식이 지난 10월 16일 서초동 수표교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락처 : 02-586-2785 (집) 031-286-9600 (직장)

• **협운해운 우희만 사장**의 차녀 경민양의 결혼식이 지난 10월 30일 쉐라톤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락처 : 02-3703-0701 (직장)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은영 회원의(지오마케팅(주) 대표이사)** 모친께서 지난 10월 11일 병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연락처 : 02-3443-9745(회사)

## 사무실 이전 및 연락처 변경

• **(주)5일넷 김봉중 사장**은 사무실을 이전하셨습니다.  
· 변경주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번지 로즈데일빌딩 1336호  
· 전 화 : 02-3413-3434 / · 팩 스 : 02-3413-3437  
· 홈페이지 : www.ju51.net / · 업 태 : 주말여가정보제공

• **남기열 회원**은 우리증권 강북1지역본부장에서 우리증권 본사 영업부 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 전 화 : 02-768-8490 / · 팩 스 : 02-768-8559

## 신규회원

### 김성귀 신규종합건설(주) 회장(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865-24 신규빌딩  
· 전 화 : 02-599-7600  
· 팩 스 : 02-599-0488  
· 업 종 : 건설업  
· E-MAIL : www.shinku.co.kr  
· 추 천 인 : 황석희 법무법인 상임고문



### 이병전 뉴그린스포츠 대표이사(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0-34  
· 전 화 : 02-2234-0300  
· 팩 스 : 02-2231-0919  
· 업 종 : 스포츠의류 제조, 도매  
· 추 천 인 : 민승현 사랑의책나누기 운동본부 본부장



### 김일환 고속도로정보통신(주) 사장(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60 일동제약빌딩4층  
· 전 화 : 02-3470-7810  
· 팩 스 : 02-3470-7899  
· 업 종 :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 통합관리 운영,  
ITS설계 시공감리 운영외  
· 홈페이지 : www. hitecom.co.kr  
· 추 천 인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 행사소식

### · 태안군청 문화예술인 초청 팸투어

본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현재 40



▶ 태안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아산원에서 기념촬영

여곳의 시, 군청 등에서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3일 ~24일 1박2일동안 태안군청 행사일환으로 문화 예술인 및 언론 출판인 등을 초청하여 바다와 송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 태안을 홍보하여 향후 그분들의 작품과 사회활동 속에 태안군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를 본연구원의 주관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행사에는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고문 외 화가, 시인, 언론인 등 30여분이 참석하시어 태안군의 풍성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하고 만끽하는 즐거

운 시간이었습니다. 투어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태안군청 진태구 군수님과 문화관광과 관계자분들의 진심어린 친절과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 · 하동군 “평사리 황금들판 문화축제”

경남 하동군과 (사)인간개발연구원은 UN이 선정한 '2004 세계 쌀의 해'를 맞아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1사 1촌 결연'을 통해 농촌을 바로 알기 위한 축제를 지난 10월 9일 하동군 평사리 황금들판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10개 기업이 하동군 10개 읍·면과 자매결연을 맺어 향후 상호발전을 꾀하기로 하였습니다.

### · 1사 1촌 자매결연 현황

|                 |         |                   |         |
|-----------------|---------|-------------------|---------|
| 부원광학(주)(사장 박춘봉) | 하동군 청암면 | 대동주택(회장 곽정환)      | 하동군 진교면 |
| 교보문고(주)(사장 권경현) | 하동군 금성면 | (주)DHL코리아(사장 배광우) | 하동군 북천면 |
| 흥안실업(주)(사장 탁재용) | 하동군 황천면 | (주)참조(회장 김광석)     | 하동군 하동읍 |
| (북)해동재단(회장 장찬기) | 하동군 옥종면 | 롯데칠성음료(부사장 이종원)   | 하동군 화계면 |
| 삼립식품(주)(사장 김영덕) | 하동군 금남면 | (주)무학(사장 최재호)     | 하동군 약양면 |



▶ 이번 평사리황금들판축제에서는 10개 기업이 1사1촌자매결연을 맺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 · 한러친선협회 후원 제6차 한러포럼 개최

구 소련의 몰락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와 한국의 민간교류를 위하여 출범한 '한러친선협회(회장 유종하 사이버MBA 회장 / 이사장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주최해 지난달 25일(월)~26일(화)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6차 한러포럼을 후원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와 국내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러관계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리 기업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               |          |           |
|---------------|----------|-----------|
| (주)신성월드       | 권오범 사장   | (11월 1일)  |
| 금강기획          | 이윤복 상무이사 | (11월 1일)  |
| (주)세원         | 김병춘 회장   | (11월 2일)  |
| (주)비츠로시스      | 장순상 회장   | (11월 8일)  |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이영희 회장   | (11월 10일) |
| (주)덕성         | 이해성 사장   | (11월 10일) |
| (주)코리아나화장품    | 유상옥 회장   | (11월 15일) |
| (주)주택문화사      | 이 심 사장   | (11월 18일) |
| 에스엔케이폴리텍(주)   | 송재문 회장   | (11월 19일) |
| 대한스위스화학(주)    | 최만식 회장   | (11월 26일) |
| 서울도시가스        | 배경운 회장   | (11월 28일) |

# 연구원소식



##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총무 송언기 태창플랜트(주) 회장)**은 지난 10월 25일 정기모임을 특별히 2080CEO포럼과 함께 CEO의 날 기념 WINE포럼으로 하여 호텔 리츠칼튼에서 가졌습니다.

• **이종기업동우회 2그룹(다락회)(회장 전순표 세스코 회장 / 총무 우창욱 동명인쇄 사장)**의 골프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자 : 2004년 11월 2일 화요일 08시 00분
- 장소 : 이스트밸리 C.C

• **이종기업동우회 3그룹(회장 황석희 법무법인 우현 상임고문 / 총무 최석태 웰빙부동산 사장)**은 지난 10월 19일 BIG DREAM & SUCCESS 공한수 사장님의 교육장에서 조순 명예회장을 모시고 소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인경회(회장 이심 주택문화사 사장 / 총무 윤건우 삼보주단 사장)**는 10월 정기 골프경기를 한양C.C에서 지난 10월 22일 가졌습니다.

• **YCF(회장 김상래 성도GL(주) 사장)**는 지난 10월 19일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본 연구원 회원이신 홍승기 유리스투자자문(주) 회장의 자녀가 운영하는 요가라이프에서 요가수련을 1시간 가장 가진 후 저녁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녁모임에 주류를 스폰해주시는 하경하 주얼루시 사장님과 문종국 우일아이비씨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차이나클럽(회장 홍순영 전 외교통상부 장관 / 사무총장**

**이두호 한국자금중개 사장)**은 지난 10월 13일 조선포텔에서 정기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세미나에서는 한·중·일 2차 FTA 연구차 한국을 방문중이었던 손효옥(Sun Xiaoyu)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의 부주임 일행을 모시고 중국 거시경제의 동향과 한·중간 협력발전 전망에 대해 들어보고 솔직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던 세미나였습니다.



▶ 4차 차이나클럽 정기 세미나에서 손효옥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부주임일행과 함께

## 지자체소식

• **여수, 제9회 여수 생선요리 향토음식 큰잔치**

—11.6(토) ~ 11.9(화) / 4일간 중앙동 물량장에서—

남해안 청정해역의 수산물에 이용한 생선요리 및 향토음식을 이용한 맛깔스러운 음식문화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제9회 남해안 생선요리 향토음식 큰잔치가 오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중앙동 물량장에서 개최됩니다. 금년 축제는 예년과 달리 '여수 생선요리 향토음식 큰잔치'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여수'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행사장소도 중앙동 물량장에서 개최하여 기존 시내 상권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 일본 크루즈 관광객 500여명이 축제를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적 요리축제로 발돋움하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LMI EPL과정 수료생 모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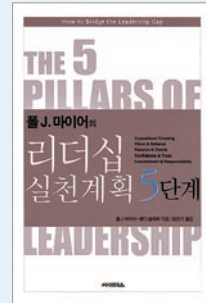
꿈이 있는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한국엘엠아이(주)에서는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와 공동주최로 지난 21일 《꿈이 있는 리더들의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본사 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프로그램의 주요 컨셉을 담은 책, 『폴 J. 마이어의 리더십 실천계획 5단계』의 출판기념을 겸한 이번 모임에서는 직접 LMI 프로그램을 기업에 도입하신 윤병철 전 우리금융그룹의 회장님을 모시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퍼스널 리더십”에 대한 진솔한 담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웃음연구소 이요셉 소장의 “건강한 삶을 위한 웃음 한 마당”, 다시 한번 EPL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양병무 원장(인간개발연구원)의 “2005 나의 꿈과 나의 소망”, 음악평론가 탁계석 회장(리더스컬처클럽)과 함께한 “해설이 있는 Salon Concert”, 그리고 전북대 김순영 교수의 시낭송이 가을 밤의 운치를 더해주었습니다.

본 행사를 위한 아낌없는 후원과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시어 의미 있는 좋은 만남이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폴 J. 마이어의 리더십 실천계획 5단계』 출간



폴 J. 마이어 · 랜디 슬래차 공저, 장만기 옮김  
도서출판 싸이더스 펴냄 / 2004년 10월 19일 발행 / 값9,800원

**지금의 우리 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강력한 리더십이다.**

전문화된 지식이 핵심자원이 되는 21세기 조직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지식근로자로 변화되어 가고있다. 조직의 경쟁력은 개개인의 리더십과 생산성에 의해 좌우된다. 구성원 모두가 저마다 스스로 리더가 되고 최고 경영자가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성과에 책임을 지기위한 실천적 리더십이 발휘될 때가 온 것이다. 이 격변의 시기에 세계적인 변화와 리더십 전문가 폴 J. 마이어와 랜디 슬래차의 《리더십 실천계획 5단계》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디로 가야할지 정확한 좌표를 제시해 준다.

“생생하게 상상하라, 간절하게 소망하라, 진정으로 믿으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실천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 폴 J. 마이어

### ■ LMI 교육안내

- 한국엘엠아이(주) [www.lmikorea.com](http://www.lmikorea.com)  
Tel. 2202-8700 Fax. 445-2086
- BIGDREAM&SUCCESS [www.whynotyou.com](http://www.whynotyou.com)  
Tel. 774-3230 Fax. 757-3230

# 溫良恭儉讓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사람** 은 서로 평가하고 평가받으면서 살아간다.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이나, 본인에게 직접 하느냐 남에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평가하는 것은 자신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평가받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기업에서는 매년 인사고과를 실시한다. 대개 1년에 두 번 정도 시행하는데 요즘엔 분기마다 하는 곳도 있다. 과거에는 상사가 부하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상사와 동료와 부하와 고객이 평가에 참여한다. 다면평가는 상하좌우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360도 평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러 각도에서 평가를 함으로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반영할 수만 있다면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점에서 “남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내가 조직을 떠나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공자의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만나면 스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했던 모양이다. 자공(子禽)이 자공(子貢)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임금들을 만나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선생님이 원해서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들이 원해서 만나는 것인지 알고 싶다.” 여기에 대해 자공이 대답한다. “선생님은 온화하고(溫) 어질고(良) 공경하고(恭) 검소하고(儉) 겸양의(讓) 인격을 가지고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게시므로 임금들이 존귀하게 여긴 나머지 스스로 찾아와 지혜를 구하므로 선생께서 그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이다.” 자공은 공자의 훌륭한 인격을 온량공검양(溫良恭儉讓)이라는 다섯 가지로 설명해 주었다. 공자 곁에 자공 같은 헌신적인 제자가 있는 것만 보아도 그 인품을 헤아려볼 수 있을 것 같다.

공자의 완숙한 이미지 다섯 가지를 음미하면 할수록 매력적이다. 공자의 인격적 특성인 다섯 가지를 디지털시대에 어떻게 벤치마킹 할 수 있을까.

#### 첫째, 온화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진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따뜻한 카리스마>란 책도 나왔다. 카리스마라고 하면 으레 강한 것만을 연상하게 된다. 강한 것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러지게 만든다. 반면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은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게 해준다. 리더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유머감각이 들어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자의 첫 번째 인품으로 온화한 마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상대방에게 진실로 존경받는 비결은 딱딱한 권위주의가 아니라 외유내강의 온유한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 둘째, 어질고 정직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온화한 인품은 어질고 곧은 마음과 연계되어야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기업에서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내부고객과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더욱이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겠는가. 바로 투명성과 윤리성이다. 기업이 이렇진대 개인에게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 시대는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어 있다. 우리의 행동을 감시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도 멀리 있는 사람일수도 있다. 이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환영받는 사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셋째,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온화하고 어진 마음의 자세는 상대방을 공경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공자는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은 적은 누구를 만날지라도 한결같이 상대방을 공경하는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였기에 당시에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고 믿어진다. 공손한 자세는 아부나 비굴함과 다르다. 당당하

면서도 예의를 갖추는 자세를 말한다.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지식정보사회는 더더욱 그러하다. 지식을 공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게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경하는 자세이다.

#### 넷째,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

리더의 삶은 항상 노출되어 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 때문이다. 리더가 아니라면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리더 자신은 물 쓰듯이 돈을 쓰면서 부하들에게 경비를 절약하라고 주문하면 효과가 있을 리 없다. 가정생활과 나라살림도 마찬가지다. 술선수범만이 건전한 재정지출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물론 과소비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획일적인 과소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과소비는 소득수준과 비례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진정한 부자는 쓸 돈은 쓰고 아낄 돈은 아끼는 사람들이다. 리더는 삶에서 절제된 모습과 동시에 언어의 절제도 필요하다. 위로 올라갈수록 언론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 다섯째, 남을 배려하는 겸양의 자세가 요구된다.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은 여유와 자신감 그리고 겸손에서 나온다. 또한 상대방을 세워주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 공자는 남을 세워줌으로써 자신이 설 수 있다는 겸양의 정신을 강조했다. 자신이 양보하고 베푸는 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것을 無往不復이라고 한다. 준 것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돌아온다. 뿐만 아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는 점을 인식할 때 겸손한 자세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공자의 인품을 상징하는 다섯 가지의 특성인 溫良恭儉讓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능력이 기본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자는 평생학습이 몸에 밴 인물이다. 학습하는 기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이 온량공검양의 품성을 갖추고 있으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공자의 다섯 가지 인품을 닦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그 경지에 도달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당신의 상사는 어떤 분입니까?”라는 물음에 “네, 온량공검양의 인품을 지니신 분입니다.”라고 부하들이 진지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이미 성공한 리더가 아닐까.

공자의 트레이드마크인 온량공검양을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으로 정하고 도전해 보자. **人間**

# 분열된 세계의 연결

Joseph Rotblat 퍼그워시 전 회장



과학과 국제문제에 관한 퍼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 on Science and World Affairs)는 핵무기와 세계평화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최초의 회의는 1957년 7월 버트런드 러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 저명한 22명의 과학자들이 캐나다의 '퍼그워시'라는 작은 어촌에 모여 핵무기 철폐에 관한 첫 회의를 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퍼그워시 회의의 주요관심은 많은 나라의 중요한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사경쟁 완화와 무기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10월 5일~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54차 퍼그워시 총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개막식에서 강연하신 조지프 로트블랫(Joseph Rotblat) 전 회장의 연설문을 소개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인 로트블랫 전 회장은 이 회의의 창설자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분으로 1995년에는 퍼그워시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총회는 히로시마 원폭 60주년을 기념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Joseph Rotblat  
퍼그워시 전 회장

이 자리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M.S.Swaminathan 총장님을 대신하여 퍼그워시의 명예교수로서 이번 회담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제54차 퍼그워시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한국 정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저의 동료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초 연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쟁점에 관한 저희의 의견이 발전하는 데에 큰 공헌을 세우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은 이 회의석 전체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번 회담의 주제는 바로 “분열된 세계의 연결”입니다. 저희 퍼그워시는 물리적으로나 또는 사상적으로 정말로 분열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연결하기 위한 다리를 건설하는데 갖은 노력을 다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저희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다고 믿고 있으며, 각 국가간의 군비 경쟁은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업적이 퍼그워시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다른 요인들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퍼그워시가 어느 정도의 찬사를 받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9년 전 노르웨이의 노벨상 협의회가 저희에게 상을 수여할 때 했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 자국의 안전을 타 국가의 불안전에 기초해서는 안 될 것

냉전체제가 끝나고 난 후 짧은 기간동안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건설은 단순한 목표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퍼그워시를 포함한 몇 개의 단체들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연구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 전 미국에 조지 부시가 이끄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의 새로운 핵형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핵형세정책이란 타 국가들의 핵무기 소지를 금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선제공격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정책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거나 또는 우리의 적이거나’라는 그의 극단적인 한마디 단언에 그의 모든 생각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시의 새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산 체제가 무너지고 15년 뒤, 우리는 세계 사회의 새로운 양극화로 접어들었습니다. 세계 사회는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로 나뉘어졌고, 좋은 나라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도록 허락된 나라인 반면 나쁜 나라란 핵무기 소지에 의한 국가안보 추구가 허락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의 핵무기 철폐를 위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안전 추구라는 명목아래 핵무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Gorbachev가 저술한 책 「Perestroika」의 세계 안보원칙에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자기 국가의 안전을 타 국가의 불안전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34년의 핵확산금지조약 역사상 가장 최악인 국제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1995년 ‘Indefinite Extension Conference’에서 핵확산금지조약의 실행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주요 도시들은 그들의 약속들을 깨버렸습니다. 2000년에는 13개의 실질적 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핵무기 제거를 위한 ‘명백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2000년에 체결된 조약을 거부하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의 문제점은 핵 보유 국가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동의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단언 위에 공격적인 외교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핵 공급을 차단 조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때

다음의 말을 명심하십시오. 퍼그워시 단체와 핵 또는 핵 방지 단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커뮤니티는 핵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핵 공급을 차단하고 조정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최신식화하고 그것을 숨기는 등의 위선적 행위로 핵 보유 국가들의 외관을 속이면서 타 국가들의 핵 소유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인내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퍼그워시는 핵무기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고 국제적 안보에 있어서의 다른 쟁점이 세계를 향한 우리의 메시지의 중심을 흐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보기구의 사회에서 말입니다. 서부 국가 전체가 핵확산 금지문제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일이다라는 것에 현혹 당한 때에, 핵무기의 ‘최신식화’가 전쟁의 군 전략의 기구로서 사용되는 때에, 법의 기초가 위태로운 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때에, 퍼그워시는 명백하고 논리적으로 말해야만 합니다.

퍼그워시는 두 개로 나뉜 이 세계는 지속될 수 없음을 한 목소리로 비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힘의 도구로써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나라들의 지배아래 살고 싶어하지 않는 많은 나라들을 소집할 수 있다고 온 힘을 다해 말해야 합니다.

퍼그워시는 핵 물질을 획득한 테러리스트들이 증가하는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를 깨우는데 일조해야만 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은 핵으로 인한 또 다른 9.11테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숙명적인 접근방법 같은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퍼그워시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의한 보안 조치를 강화시키고 싶어하는 나라와 함께 그 노력을 배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 핵 확산 금지는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지켜나갈 문제

수년동안, 저희 퍼그워시는 핵 무력화를 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인



동기부여 및 안내를 하며 많은 아이디어와 방법 연구를 하는 효과적인 단체로서 일해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사회의 핵의 위험성에 대한 무지함과 정부의 일구이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공공교육 캠페인의 필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상상했던 공공교육은 퍼그워시 혼자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단체들과 함께 핵무기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는데 최전방에서 서서 무엇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으며 또 해야만 합니다. 캐나다 퍼그워시 총회가 비핵중립국의 안보구상과 함께 일을 함으로써 캐나다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은 좋은 협동작업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영국 퍼그워시 총회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의 위험에 대해 알리기 위해 다른 몇 조직과 함께 평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 작업을 해왔습니다. 퍼그워시는 핵 확산 금지 및 핵 군비 철폐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신 아젠다 연합과 함께 협동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지와 기꺼이 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비판적이라 할지라도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고, 의사소통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핵확산금지조약의 새로운 협동조약 구축을 원하는 많은 나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강화시키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퍼그워시는 공헌을 세우기 위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人間)

# Age of Serotonin

**제목** 이 어렵다. 일반 독자에겐 생소한 말이다. 하지만 일부러 썼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말은 전문 학술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지식사회다. 그 중에도 뇌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지식 없이는 어떤 분야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미국 대통령위원회는 지난 1990년대를 “Decade of Brain”으로 선언했었다. 요 몇 해 사이 뇌 과학은 경이로운 발전을 하고 있다. 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비에 묻혀 있던 마음, 정신의 실체가 이젠 눈에 보일 정도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감정에 대한 연구가 제일 앞서 있다. 감정상태를 결정짓는 뇌 호르몬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공격성 호르몬은 누가 밟다, 한 대 치고 싶다 등 공격을 해야 하는 위험 상황이나 혹은 달아나야 할 경우를 대비해 분비된다. 이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개체 보존의 본능적 반응으로써 놀 아드레날린(N.A)이 주력 부대이다. 이게 분비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거칠고 눈동자가 커지며 팔 다리가 떨린다.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문제는 이런 위험상황이 아닌데도 성격상 걸핏하면 성을 잘 내는 소위 A형 성격이다. 왜 이들에게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높은지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이와는 반대로 쾌적 호르몬은 기분 좋을 때 분비된다. 엔돌핀(도파민)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좋다고 애인 생각으로 내일 시험 공부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제3의 호르몬, 세로토닌이다. 공격과 쾌적 호르몬이 어느 한 쪽으로 폭주하지 않게 조절을 해준다. 이

게 없으면 신경질 좀 난다고 폭행살인까지 치닫게 될 수도 있고, 기분 좋다고 분수없이 낭비를 할 수도 있다.

세로토닌의 조절작용으로 정신적으로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명 중용(中庸)호르몬이라 부른다.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의 극단적 행동을 보면서 집히는 데가 있을 것이다.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이다. 그만한 일에?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충동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저지른다. 조절이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로토닌 신경은 고급감정, 정신작용을 맡고 있는 전두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세로토닌은 조절작용 외에도 기분을 사뭏하게, 원기 왕성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다. 고로 이게 부족하면 우울증에 빠진다. 고개를 늘어뜨리고 꾸부정한 허리, 생기 없는 얼굴, 아침에 영 못 일어나는 등의 전형적인 우울증상이 나타난다. 우울증에 제일 많이 쓰이는 ‘SSRI’는 세로토닌 신경을 강화함으로써 치료가 된다. 공황장애, 섭식장애 역시 같은 기전이다.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이 왜 특히 현대인에게 부족할까? 세로토닌 활성화에 제일 중요한 규칙적 운동, 씹고, 걷고, 호흡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걷지 않고, 유동식을 즐겨 씹지 않고, 호흡이 얕다. 그리고 전구물질인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당분과 햇빛이 필요한데 다이어트, 밤낮이 거꾸로 된 젊은이, 숨도 죽인 채 게임에 빠진 소위 ‘게임 뇌’는 세로토닌 결핍 위험을 배가시키고 있다. 컴퓨터 앞에 어른도 안심해선 안 된다.

옛 사람처럼 잘 씹고 태양아래 많이 걷고 그리고 깊은 복식호흡을 의식적으로 하자. 그리고 10분 정도의 명상이 기분을 사뭏하게 해주는 것도 세로토닌의 작용임을 잊지 말자.

요즘 기분이 어떻습니까? 혹시 세로토닌이? **人間**

삼립빵®

# 삼립호빵



소비자 선호도 1위

'김용만'과 함께하는 삼립호빵  
호빵먹고 SM3 타자

삼립호빵 포장지의 '경품 행사 응모권'을  
엽서에 붙여 보내면 빵빵한 경품이 팽~핑!

- 행사기간: 2004.10.11~11.30일까지
- 경품: 1등-신형SM3(1명)/2등-트롬세탁기(3명)  
3등-토스터기(200명)/4등-가정용찜기(600명)
- 당첨자발표: 12월3일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www.samlipgf.co.kr)



## 당신의 아일랜드 주방이 보입니다

고급 잡지에서 눈여겨 본 아일랜드 주방을 당신의 주방으로 꾸미겠다는 당신.  
차곡차곡 재산을 키워가며 멋진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이야말로  
저희가 로얄로 모시고픈 분입니다. 지금 당신께선 어떤 금융서비스를 받고 계십니까?

**3천만원 이상** 의 수신고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2) 530-7400

• Wealth Management 서비스 • 회원전용 Royal Corner • 1:1 채테크 투자상담

당신이 누려야 할 금융서비스  
**Royal Corner Service**